



2014년 제5차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협의회 회의결과보고



2014년 제5차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협의회 회의결과보고

- 협의회 그간의 운영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항 등 실무분과별 운영사항에 대한 공유,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안) 심의를 위한 『2014년 제 5차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임.

개 요

- 일 시 : 2014. 11. 20(목), 10:30 ~ 12:00
- 장 소 : 시청 중회의실(별관 2층)
- 참석인원 :
 - ▶ 실무협의회 위원 : **총 26명중 18명 참석(69.23%)**
 - 참석위원 : 18명(민 12명, 공 6명)
박은순, 임숙자, 김금순, 김유라, 박창재, 송경순, 이인숙, 조용준, 주관호, 최미숙, 김희순, 하경희, 김상두, 송영진, 조명희, 최해성, 호민우, 황호성
 - 미참석위원 : 8명(민 2명, 공 6명)
김진주, 여인미, 임유정, 김상기, 권춘규, 김일기, 옥인숙, 허숙경
 - ▶ 사회복지과 : 김충영
 - ▶ 협의회사무국 : 송원찬, 임복희, 허운범, 강경미

주요내용

○ 주요내용

1) 보고사항

-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
- 위원변동 사항

2) 실무분과별 운영사항 논의

-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및 회의 운영

3) 안건토의

-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안)

회의결과

I. 보고사항

① 그간의 추진사항 보고 및 향후 추진일정

- 2014년 9 ~ 12월 운영사항, 11 ~ 12월 중 추진 계획 보고
- 질의응답

질의자	내용	답변자	내용
황호성 위원	- 인권교육이 어떻게 진행된 것 인지 질의	사무국장	- 인권팀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기 관 인권교육 수요조사 실시하여 연계하였음

○ 기타사항

- 협의체 우수사례 공모, 보건복지부 100만원 포상
- 사무국장 퇴직

② 위원 변동사항

- 실무분과 : 신규위원 위촉 5명

II. 실무분과별 운영사항

○ 2014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및 회의운영 관련 공유

실무분과	내 용
통합서비스지원분과	-자체학습으로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 및 2015년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중점적으로 진행 함
지역분과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수원여성회 지원을 받아 추진함. -그동안 지역분과에서는 2기 계획의 전달체계분야를 주로 모니터링 하였으나, 2015년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은 전략중심으로 인권, 문화 등 다른 영역의 사업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위원들의 혼란 있었음.
자활고용주거분과	-사회적경제한마당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각 단위들이 모여 정보공유, 소통의 좋은 기회가 되었음. -복지계획은 일자리창출과, 주택과, 사회복지과와 관련되어 있는데, 복지 외는 참여가 잘 안되었으며, 분과 차원에서 주거복지에 힘을 쏟고 있음. 분과와 담당부서와 인식차이가 있어 간담회 예정임.
아동분과	-우수분과가 되고 나면 출석률 떨어지는 경향있으며, 하반기에 출석률 떨어짐. -성미산마을 벤치마킹 다녀옴. 마을공동체와 아동복지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노인분과	-노인문화축제 4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변화를 추구함. 올해는 앵그리버드 등 흥미 있는 부스 운영을 하고자 하였음. -분과의 명칭 고민 필요함.
장애인분과	-2015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하였음. 장애인이 편안히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음, 장애인분과 회의는 주로 여성문화공간 휴에서 회의 진행함.
여성가족분과	-2015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민관협력의 어려움 등 논의 필요함. 여성문화공간 휴 관련해서 분과에서 세부적으로 모니터링 필요.
영유아분과	-11월 건강한 아동 성장을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하였으며, 영유아만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고 하여 시청각 자료 검토함.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 중앙정부의 떠넘기기 현상이 이러한 사례가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민과 대안 모색 필요
교육분과	-평생학습축제기간 내 휴먼라이브러리 수원을 진행하였으며, 편견카드 작성 및 사람책 등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
청소년분과	-2015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청소년분과에서는 형식적 모니터링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사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모니터링 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음. 협의에 차원에서 포상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바람.
보건의료분과	-2015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위원의 출석률 향상을 위해서 위원이 속한 기관별을 방문하여 회의하고 있음. -동주민센터 공공위원을 위촉하여 활동,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실무분과	내 용
사회공헌분과	-희망한마당 실시하였으며, 복지계획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고 있음.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는데, 모니터링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인지, 통제와 관리를 위한 것인지 등 돌아보았으면 함. 사업부서의 참여 및 모니터링에 대한 변화필요

Ⅲ. 안건토의

①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안)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

○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15년도
- 추진사업 : 5대 전략, 11대 핵심과제, 78개 사업

〈단위 : 개/천원〉

구 분	4개년계획중 2015년도 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증 감	증감율	비 고
사업건수	80	78	△2	△2.5%	
사업예산	62,310,979	66,674,191	4,363,212	7%	

구 분	총 계	지 역 사 업			보 편 사 업		
		소계	신규사업	지속사업	소계	신규사업	지속사업
사업건수	78	43	19	24	35	5	30
사업예산	66,674,191	16,945,000	11,605,000	5,340,000	49,729,191	5,057,800	44,671,391

○ 논의내용

실무분과	내 용
황호성 복지자원관리팀장	- 4개년계획 2개 사업이 폐지되었음. 복지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의 경우 동주민복지협의체를 통해 복지마을만들기를 하려는 취지였음. 실무분과 및 추진단에서 건의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부서에서 보기에는 동주민복지협의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됨. 예산 신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음.
박은순 실무협의체 위원장	- 사업부서와 이해의 폭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계획에 올라온 것으로 보임. 필요한 사업이라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업부서 및 실무분과와의 조율 필요함. - 폐지된 사업인 동아리활동을 통해 찾아가는 노인문화공연사업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
임복희 팀장	- 4개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폐지되었음.

실무분과	내 용
이인숙 통합서비스지원분과장	- 실무분과에서 논의해서 상정된 내용의 반영이 어느 정도 인지 의구심이 있으며, 실무분과에서 괴리감 또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 있다고 느낌. 내년에는 실무분과의 역할 및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박은순 실무협의체 위원장	- 예전에는 실무분과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만 다루는 체계였으나, 이제 1~2개 이상의 사업부서의 사업을 맡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간담회 등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마련 필요.
하경희 아주대학교 교수	- 2기 계획은 실무분과에서 분야별로 마련되었으나 3기 계획은 전략별로 수립되었음. 실무분과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배분이 되었는지?
임복희 팀장	-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사업 배분하였음. 다만, 지역분과의 경우 직접 업무와 연관없으나 포괄적인 사업이 배치하였음. 사업부서의 참여 유도 및 조직진단 시 실무분과의 역할 고민 필요함. - 세부사업의 경우 실무분과에서 평가, 전략 및 핵심과제 달성도 평가는 외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음
박창재 지역분과장	- 수립 추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은 3기 복지계획의 상세한 내용 인지하지 못함. 지역분과에서는 인권, 문화, 종사자 처우 사업을 맡게되다보니 내년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며, 워크숍때부터 다뤄졌으면 함.
하경희 아주대학교 교수	- 2기에 비해 사업수가 절반 이하로 적어졌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함. 실행의 역할에 더 주체적으로 참여 필요함.
박창재 지역분과장	- 외부전문가 평가시스템은 위협할 수 있음. 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보완하는 방향 건의. -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 필요
황호성 복지자원관리팀장	- 수립 추진단과 실무분과 사이에 소통의 어려움 있었음. 외부 기관이 등장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음.
임복희 팀장	- 외부 평가시스템의 의미는 세부사업 평가를 벗어나 전략 및 핵심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박은순 실무협의체 위원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협력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외부 평가단보다는 지역 내 다른 기관들과의 연대 방안 필요함. - 모니터링은 복지계획에 대한 민관의 눈 맞춤임. 모니터링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며, 실무협의체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송경순 청소년분과장	- 위원 본인이 현장을 알아야 시에 건의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직접 보고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함. 청소년분과에서는 관심있는 사업에 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실제 모니터링함. - 내 부서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많이 듣고 교육이 필요하며, 참여 위원의 책임성이 필요함
송원찬 사무국장	- 평면적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입체적 모니터링 필요함
김희순 여성가족분과장	- 행정에서는 평가 모니터링의 자리를 부담스러워 함. 구체적인 논의 필요하며, 사업에 대해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기회 필요함. - 수립 추진단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해의 어려움이 있으며, 발언의 수준과 내용이 고민됨. 위원들에게 공유가 많이 되었나라는 의구심있음
김유라 장애인분과장	- 위원의 이동이 많다보니 신규위원 많음. 바쁜 일정중에 네트워크를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나 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약함. 마땅히 해야하나 움직일 수 있는 동력도 필요함.

참고자료

- 1) 관련사진
- 2) 회의록
- 3) 녹취록

[참고자료 1] 관련사진

2014년 제5차 실무협의체회의(2014.11.20.)



[참고자료 3] 녹취록

1.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

- 황호성 위원 : 인권교육 어떻게 진행되는지?
- 사무국장 : 인권팀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기관 인권교육 수요조사 실시하여 연계하였음.
- 사무국장 : 협의체 우수사례 공모로 100만원 시상함.
사무국장 퇴직인사 드림.

2. 실무분과별 운영사항

- 통합서비스지원분과 : 11월에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교육, 10월에는 자활사업에 대한 교육을 개최함. 또한 2015년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진행함.
- 지역분과 : 여성친화도시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하였는데 위원들이 혼란스러워함. 2기 계획 때는 전달체계 분야였으나, 이번에는 전략별로 하다보니 혼란스럽게 생각함.
- 자활고용주거분과 : 사회적경제한마당을 진행하였으며, 각 단위들이 모여 정보공유, 소통의 좋은 기회가 되었음. 계획의 경우 일자리창출과, 주택과, 사회복지과와 관련되어 있는데, 복지 외는 참여가 잘 안되었음. 분과 차원에서 주거복지에 힘을 쏟고 있으며 분과와 담당부서와 인식차이가 있어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음.
- 아동분과 : 우수분과가 되고 나면 출석을 떨어지는 경향있는데 하반기에 출석을 떨어짐. 성미산마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마을공동체와 아동복지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노인분과 : 노인문화축제 4년째 실시하고있으며 매년 변화를 추구함. 올해는 의미있으면서 흥미 있는 부스를 운영(예:앵그리버드)함. 분과의 명칭 고민 필요하지 않을까? 노인이란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 있음.
- 장애인분과 : 장애인 참석이 어려운 회의장 구조임을 고려해서 여성문화공간 휴에서 회의 진행함. 2015년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을 진행함.
- 여성가족분과 : 2015년 시행계획 모니터링시 민관협력의 어려움 등 논의함. 여성문화공간 '휴'와 관련해서 분과에서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했으면 어떨까? 주차장부터 모든 시설 모니터링 및 위원 위촉도 고려했으면 함.
- 영유아분과 : 건강 아동 성장을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하였으며, 영유아만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청각 자료 검토함.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 중앙정부의 떠넘기기 현상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민과 대안 모색 필요.
- 교육분과 :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진행,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
- 청소년분과 : 2015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형식적 모니터링을 극복하기 위해 행사나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페이지를 쓰고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음. 협의체 차원에서 포상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바람.
- 보건의료분과 : 2015년 시행계획 모니터링함. 위원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회의하고 있음.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 참여와 관련하여 지역에 있는 공공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음.

- 사회공헌분과 : 희망한마당 실시하였으며, 복지계획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고 있음. 3기 계획에는 120회 정도 회의도 했는데,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회의를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음. 모니터링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인지,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인지, 통제와 관리를 위한 것인지 등 돌아보았으면 하며,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 변화를 가져올 필요 있음. 문서를 통해 사업부서 소통안되며 사업부서의 참여 필요함.

3. 안건토의

1)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안)

- 황호성 위원 : 4개년 계획 대비 2개 사업 폐지되었음. 복지마을만들기 시범사업 폐지 이유 : 동주민복지협의체의 활동을 가지고 복지마을만들기를 하려는 취지였음. 분과와 추진단에서 의견을 줘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보기에는 아니었음. 동주민복지협의체가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됨. 예산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대신에 동주민복지협의체 핵심리더 로 예산편성됨. 동주민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된다면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지금은 무리임.
- 박은순 위원장 : 담당부서와 이해의 폭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계획에 올라온 것으로 보임. 현재 미확보되었더라도 논의 필요. 충분히 논의되고 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좁혀나갔으면 함.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업부서 및 실무분과와 조율 필요함. 의미있는 사업이나 폐지된 것은 안타까움.
- 박은순 위원장 : 노인문화 관련된 사업 폐지된 사유는 무엇인지?
- 임복희 팀장 : 4개년 계획 수립시부터 노인복지팀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으며, 사업비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부서에서 확보 안되었다고 알고있음.
- 송원찬 사무국장 : 모니터링 과정에서 분과와 복지계획의 사업이 맞나?
- 이인숙 위원: 분과에서 논의해서 올라가는데 반영이 어느 정도인지 의구심 있음. 분과에서 괴리감 또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낌. 내년에는 분과의 역할 고민 필요.
- 박은순 위원장 : 예전에는 분과에서 해당 부서의 사업만 다뤘는데, 이제는 분과에서, 1, 2개 이상의 사업을 맡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 등 대비 필요.
- 하경희 위원 : 2기 계획은 분과에서 마련되었는데, 3기는 전략별로 세웠음. 분과별로 배분했는데, 어땠는지?
- 임복희 :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배분하였으며, 지역분과의 경우 직접 업무와 관련없는 사업이 배치됨. 사업부서의 참여를 유도하든지, 조직 진단 때 분과의 역할까지 고민 필요함. 세부사업은 분과 등에서 평가하고, 전략별 평가는 외부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박창재 위원 : 추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은 3기 복지계획의 상세한 내용 인지하지 못함. 이번에 인권, 문화, 종사자 처우 등을 맡게 되다 보니, 분과 위원들이 할 게 없게 됨.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됨. 워크숍 때부터 다뤄졌으면 함.
- 하경희 위원 : 예년에 비해 사업수가 절반 이하로 적어졌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실행력 높이는 방안도 중요. 실행의 역할에 더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 박창재 위원 : 외부전문가 평가 시스템은 위협할 수 있다. 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없어질 것

같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예로 들면,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보완하는 방향이면 좋겠다. 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 황호성 위원 : 추진단과 분과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외부 기관이 등장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
- 임복희 팀장 : 제 말의 의도는 세부사업 평가를 벗어나 핵심과제, 전략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 박은순 위원장 : 또 다른 형태의 평가단은 아님. 협의체의 발족 취지는 민관이 함께 가기 위해 생겨난 것임. 외부 팀(평가단)보다는 오히려 지역 내 다른 기관들(협의회 등)과 연대하는 방안 필요. 모니터링은 복지계획에 대한 민관의 눈맞춤임. 모니터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 장을 한 번 마련하겠다.

사실 실무협의체가 이러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 송경순 : 위원 본인이 알아야 시에 건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가보고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임. 의견을 많이 듣고, 교육도 필요.
- 송원찬 사무국장 : 평면적 모니터링을 벗어나, 입체적(내실 있는) 모니터링 필요.
- 김희순 위원 : 사업 추진기관 실무분과에 참여해야 함. 행정에서는 모니터링 자리가 부담스러울수있음. 이런 회의 왜 하지라는 생각도 들게 됨.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이 안되며, 구체적인 논의 필요. 페이지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이라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 대해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추진단에 끼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많음. 1차 회의 때 안 갔는데 2차 회의 때 가서 발언의 수준과 내용이 고민됨. 실무분과와 수립추진단의 연계성 부족하며, 위원들에게 공유가 많이 되었나라는 의구심이 듦. 결과 반영이 중요하나 회의에 대한 회의감이 듦.
- 김유라 위원 : 장애인분과는 위원의 보직 이동이 너무 많다 보니 신규위원이 많음. 너무나 바쁘는데 네트워킹을 위해서 협의체에 나오지만, 분과에서 뭘 하려고 하면 위원 위촉장 하나만으로 무슨 메리트가 있나라는 얘기 있음.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해야하나 움직일 수 있는 동력도 필요함.